



2013년 3월 22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미국 달러 강세의 배경과 시사점

• 이머징마켓 동향

HSBC PMI 지표 호조, 상해종합 사흘째 강세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하이닉스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유한양행 외 5종목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분		03/14(목)	03/15(금)	03/18(월)	03/19(화)	03/20(수)	03/21(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02.13	1,986.50	1,968.18	1,978.56	1,959.41	1,950.82	
	등락폭	2.40	-15.63	-18.32	10.38	-19.15	-8.59	
	등락종목	상승(상한)	494(6)	460(12)	260(20)	472(3)	252(8)	298(2)
		하락(하한)	324(2)	359(4)	566(2)	322(2)	565(1)	494(7)
	ADR	106.02	105.02	100.51	102.76	97.97	91.83	
	이격도	10 일	99.68	99.10	98.40	99.11	98.45	98.29
		20 일	99.89	99.09	98.21	98.74	97.85	97.60
	투자심리	60	50	50	50	40	40	
	거래량 (백만 주)	321	303	301	322	327	258	
	거래대금 (십억 원)	3,971	5,212	3,906	3,646	3,728	3,489	
코스닥	코스닥지수	553.58	554.81	541.09	550.01	546.26	544.56	
	등락폭	3.85	1.23	-13.72	8.92	-3.75	-1.70	
	등락종목	상승(상한)	581(14)	474(9)	181(6)	711(9)	297(10)	374(5)
		하락(하한)	344(6)	447(5)	762(9)	226(4)	640(9)	546(11)
	ADR	116.12	112.28	104.02	107.67	102.15	97.90	
	이격도	10 일	101.88	101.75	99.17	100.69	99.97	99.60
		20 일	103.77	103.59	100.78	102.14	101.22	100.73
	투자심리	80	80	70	70	60	60	
	거래량 (백만 주)	591	561	502	488	477	457	
거래대금 (십억 원)	2,525	2,594	2,286	1,936	2,160	1,95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타	
유가증권	매수	1,757.4	915.7	795.6	167.4	100.0	228.0	44.7	28.2	205.3	45.3
	매도	1,503.3	1,230.0	739.6	181.4	128.9	188.1	69.4	13.4	139.1	41.2
	순매수	254.1	-314.2	56.0	-14.0	-28.9	39.9	-24.7	14.8	66.2	4.1
	03월 누계	1,403.0	-1,824.2	404.8	99.4	54.0	-629.6	-47.4	50.4	411.1	16.4
	13년 누계	714.4	-2,144.8	1,743.3	1,032.9	436.7	-1,952.4	-226.0	91.6	1,881.6	-313.0
코스닥	매수	1,786.8	81.8	88.7	11.0	10.6	26.5	3.9	5.3	28.5	15.4
	매도	1,787.1	77.3	88.8	15.0	11.9	31.3	9.0	2.3	16.0	19.4
	순매수	-0.3	4.4	-0.1	-4.0	-1.3	-4.8	-5.1	2.9	12.5	-4.0
	03월 누계	-296.9	297.3	64.7	-11.7	20.2	-23.3	-35.2	6.0	68.4	-65.1
	13년 누계	-935.4	598.4	555.8	62.3	48.6	124.8	-20.9	-7.4	308.7	-218.8

미국 달러 강세의 배경과 시사점

3월 월간 밴드	1,930-2,05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400pt
12MF PER	9.2배
12MF PBR	1.02배
Yield Gap	8.2%P

- ▶ 미국 달러: 2002년 이후 장기 약세 추세 전환. 달러 강세 국면에서 이머징 경제 둔화
- ▶ 1995년 이후 사례: 달러 강세, 연화 약세 / 선진국과 이머징 증시 괴리/상품 가격 하락
- ▶ 한국은 Late deleveraging 상황, 디커플링 지속으로 KOSPI는 박스권. 중소형주 강세 지속

■ 1995년 vs. 2013년

과거 역사를 보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가치가 강세를 보일 때 특히 이머징 국가의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크게 두 가지 배경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이머징 국가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국제 상품 가격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상품 수출에 의존하는 이머징 국가들의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과거에는 이머징 국가 통화가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고정환율제도) 달러의 강세가 이머징 통화의 강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상품이 아닌 제조업에 기반한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도 약해지게 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 원인은 이머징 국가의 성장에 필요한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축적된 자본이 부족한 이머징 국가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빌려와야 한다. 그런데 달러가 강세로 가고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몰릴 경우 이머징 국가들이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부족해지고 그러므로 달러 조달 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이머징의 수출 경쟁력 악화로 벌어들이는 달러가 줄어드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길게 보면 미국의 달러는 2002년부터 장기 약세 추세를 보여왔다. 재정 및 경상 적자 확대, 유레가 없는 연준의 저금리 정책, 이머징 국가의 고성장 등이 달러 약세의 배경이었다. 그런데 2011년 하반기 이후 미국 달러 장기 약세 추세의 바닥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가장 중요한 상대 통화인 유로화와 일본엔화의 하락 압력이 높아졌고, 중국을 중심으로 이머징 국가의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무엇보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디레버리징 싸이클에 진입한 상황에서 미국 신용 사이클은 가장 먼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과연 미국의 장기 달러 약세 추세는 이미 바닥을 통과한 것일까? 그렇다면 향후 전개될 달러 강세 국면에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1995년 이후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1995년 이후 사례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장기 약세 추세를 나타내던 미국 달러가 바닥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1985년 이후와 2002년 이후 달러 사이클을 보여주는 차트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다(그림 1~2). 전자가 다중 바닥을 형성하고 1995년부터 추세적 상승을 보였다면 지금은 다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림 1] 미국 달러인덱스 - 1985~2001년



자료: Decisionpoint,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미국 달러인덱스 - 2002년 이후



자료: Decisionpoint, 한국투자증권

또한 일본엔화의 변곡점도 1995년에 나타났다. 1995년 4월 G7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는 엔화의 약세를 유도하도록 하는, 이른바 역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엔화의 가치는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2012년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 엔화 가치가 급격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1995년 역플라자 합의 이후를 상기시킨다.

[그림 3] 일본 엔화 가치 인덱스 - 1985~2001년



자료: Decisionpoint,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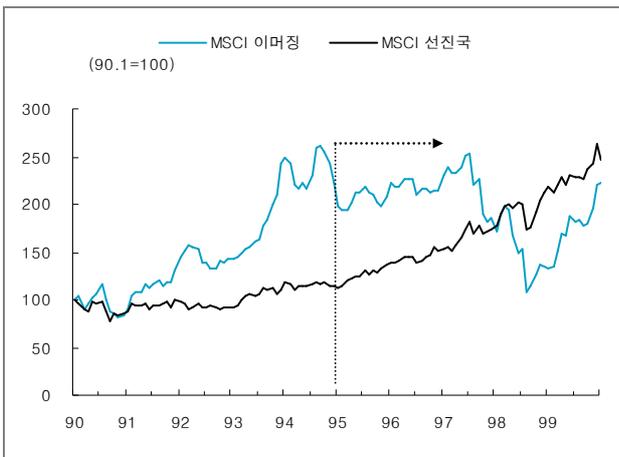
[그림 4] 일본 엔화 가치 인덱스 - 2002년 이후



자료: Decisionpoint, 한국투자증권

이 당시 주요 리스크 자산의 움직임은 어땠을까? 1995년 이후 달러가 강세로 전환된 이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머징과 선진국 증시의 괴리 현상이다. 이머징 증시는 1990년대 초반에 이어진 강세장을 뒤로 하고 달러 강세 국면인 1995~1996년에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선진국 증시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한 국제 상품 가격은 1996년까지 강세가 이어지다 이후 약세로 전환되었다. 상품 중에서도 구리 등 비철금속의 고점은 1995년에 나타났으나 원유 가격은 1996년 말에 가서야 고점을 쳤다.

[그림 5] 1995년 이후 이머징과 선진 증시의 괴리 발생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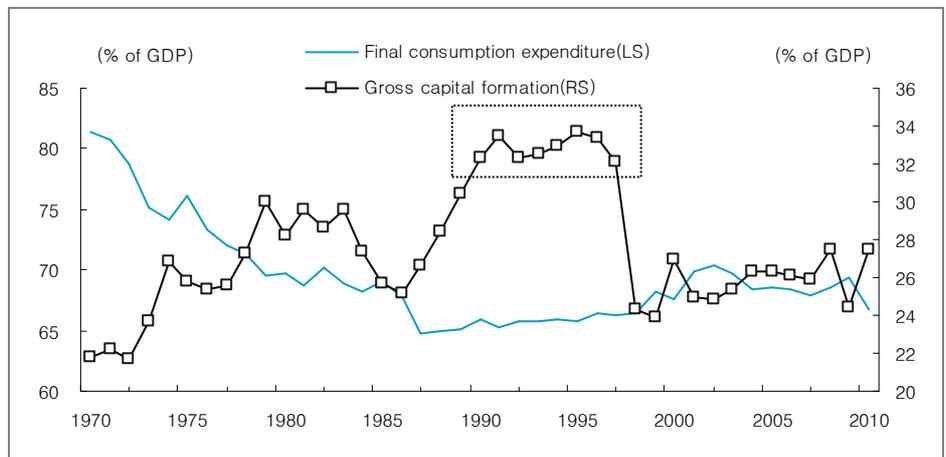
[그림 6] CRB 지수 - 1985~2001년



자료: Decisionpoint, 한국투자증권

1990년대 초중반은 특히 이머징 아시아의 투자 모멘텀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이머징 아시아(한국+대만+아세안)의 투자 비중이 GDP 대비 30%를 내내 상회할 정도였다. 문제는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해외 차입에 의존했다는 점인데,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달러 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결국 이는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1995년 이후 이머징 증시의 부진은 이러한 매커니즘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머징 증시가 국제 상품 가격보다 먼저 꺾인 이유도 투자 사이클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7] 아시아 국가 소비와 투자 Break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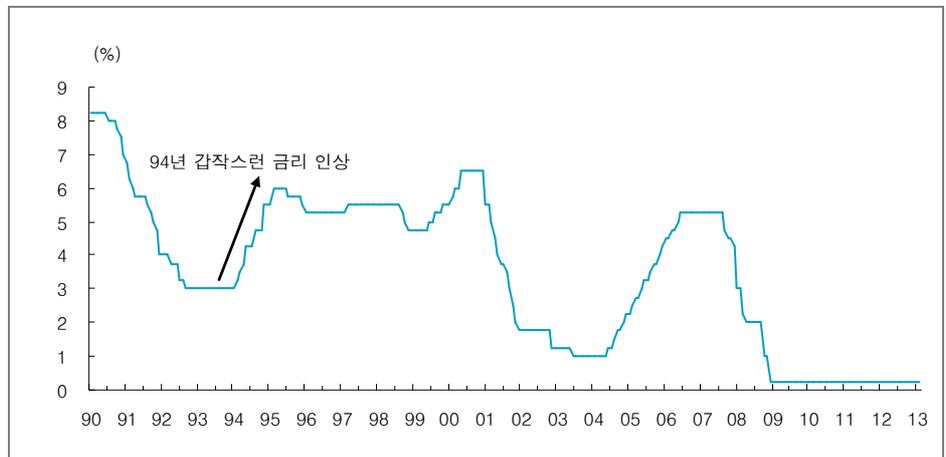


주: 한국, 대만, 아세안연합 합산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차이점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의 금리 사이클이다. 1990년대에는 이미 1994년부터 미국의 정책 금리는 상승했으나 지금은 연준이 여전히 비전통적인 통화수단(QE, 정책 목표 타게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QE의 조기 종료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특히 이머징 국가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뀐 이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 목표 타게팅(실업률 6.5% 이하로 떨어질때까지 QE 지속)이란 결국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서 이러한 논의(QE 조기 종료)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2년 9월 26일에 발간한 'GMS#4: QE3와 디커플링'을 참고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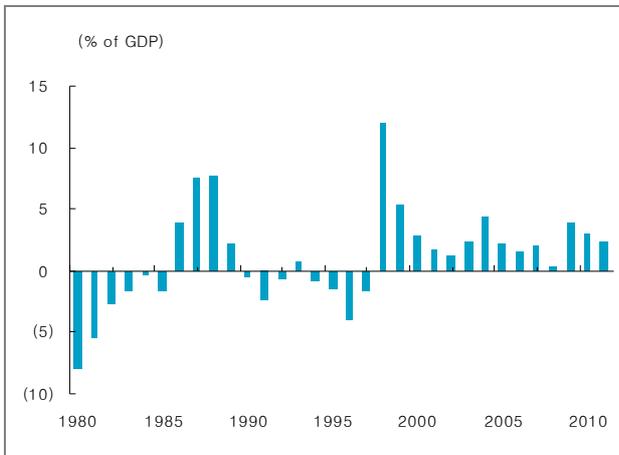
[그림 8] 미국 연방기금 금리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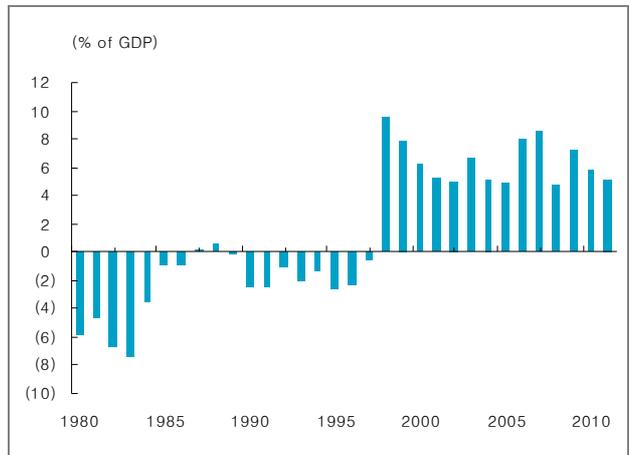
또 다른 차이점은 이머징 국가들의 경상수지 측면이다. 1980~1990년대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 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모델은 순수하게 수출 위주가 아니라 투자에서 수출로 이어지는 사이클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모델은 순수 수출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경상수지 흑자도 누적되었다.

[그림 9] 한국 경상수지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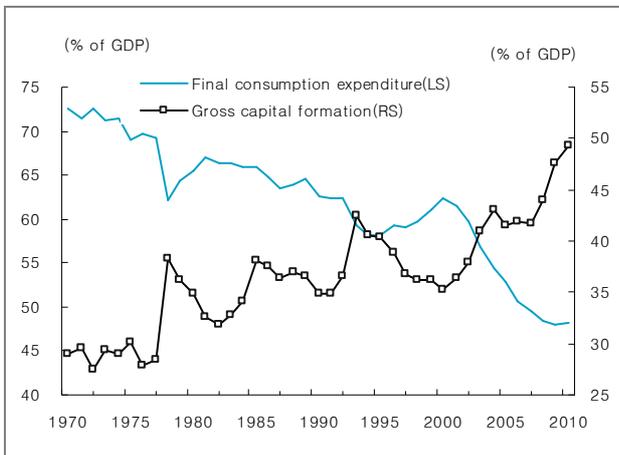
[그림 10] 아세안 경상수지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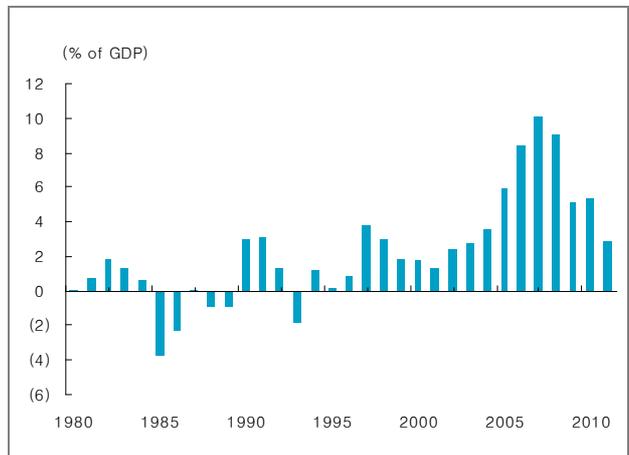
그러나 엄밀히 말해 1990년대 이머징 아시아는 지금의 중국이다. 따라서 중국의 상황이 더욱 중요한데, 중국은 당시 아시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은 매우 유사하게 가고 있어 우려가 된다. 즉 GDP의 50%에 육박하는 과잉투자과 경상수지 흑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향후 달러 강세 국면에서 잠재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동안 축적된 내부 자본이 얼마나 되고 또한 내수 소비가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11] 중국 소비와 투자 Break down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중국 경상수지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 Implication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보자.

첫째, 2002년부터 이어져온 달러 약세 추세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미국 달러 강세 가능성을 높게 본다. 미국 신용사이클의 회복/에너지 등에서 혁신의 우위/이에 따라 달러화 자산의 매력 증가/재정 및 무역 수지 적자 감소/장기적으로 QE가 7~8 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날 때 이머징 국가들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1995년 이후 사례를 꼽을 수 있다. 1995년 이후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달러 강세 & 엔화 약세 동시 진행
- 2. 선진국 증시 강세, 이머징 증시 약세
- 3. 국제 상품 가격 하락
- 4. 이머징 국가의 <투자 → 수출> 사이클 악화
- 5. 이에 따라 이머징 국가 경상 수지 악화와 과잉 투자 우려 대두

단, 1995년과 지금이 다른점은 그 당시에는 이미 미국 정책 금리가 상승했고, 그 이전 10여년간 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는 대체로 적자를 보였던 반면, 지금은 여전히 미국의 QE가 진행중이고 아시아 국가들이 수년간 경상수지 흑자를 축적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1995년 이후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이 당장 이머징 국가의 심각한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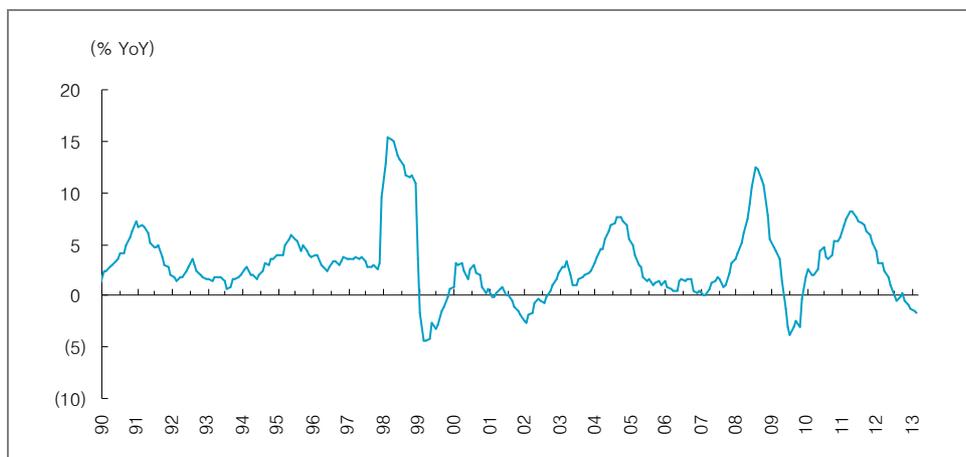
이에 대한 시사점을 생각해보자.

첫째, 한국의 디커플링은 단순 수급적 요인이라기 보다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달러 강세 특히 엔화 약세와 맞물린 경우, 가장 어려워지는 국가는 공격적인 투자를 했고 또한 이 설비를 이용해 수출도 많이 했던 국가이다. 최종 수요처인 선진국의 자국내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쟁하는 국가의 환율이 절하될 때 결국 수출 경쟁력은 약해지고 그동안 늘려왔던 투자는 고스란히 과잉 투자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때 과잉투자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최근 한국 증시와 아세안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아세안은 내수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상품(Commodity) 수출 둔화를 상쇄할 수 있고, 특히 인프라/발전소 등의 투자는 오히려 크게 늘어야 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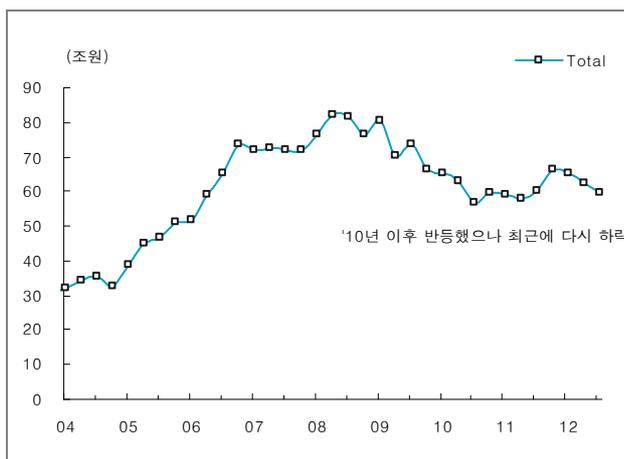
반면 한국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2005년 이후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감행해 과잉투자의 우려가 존재하고 특히 내수 경기가 매우 부진하다. 한국 생산자물가 PPI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점, 2012년 이후 매분기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은 한국이 단순히 내수 부진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디레버리징의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3~17).

[그림 13] 한국 생산자물가 - 1990년 이후 PPI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경우는 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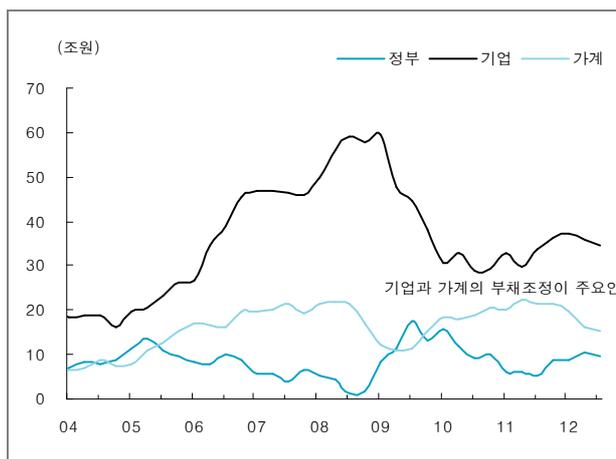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총부채 증감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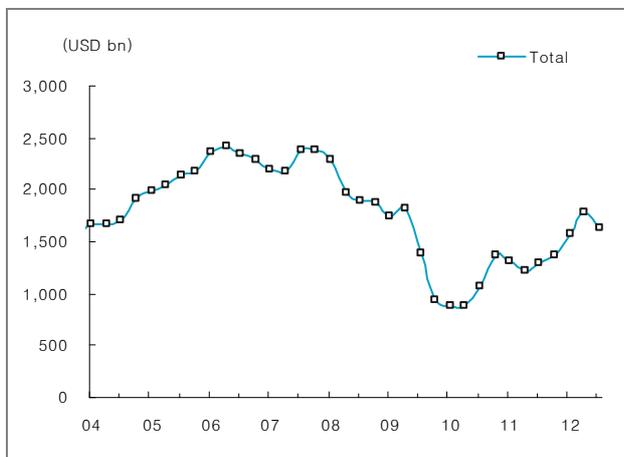
자료: 각국 Flow of Funds,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주체별 총부채 증감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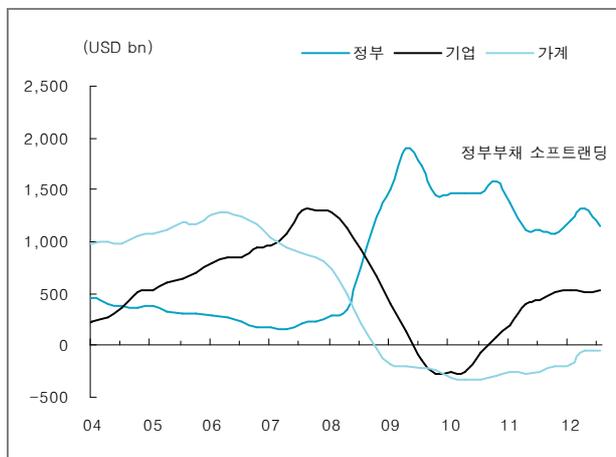
자료: 각국 Flow of Funds,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총부채 증감 - 미국



자료: 각국 Flow of Funds,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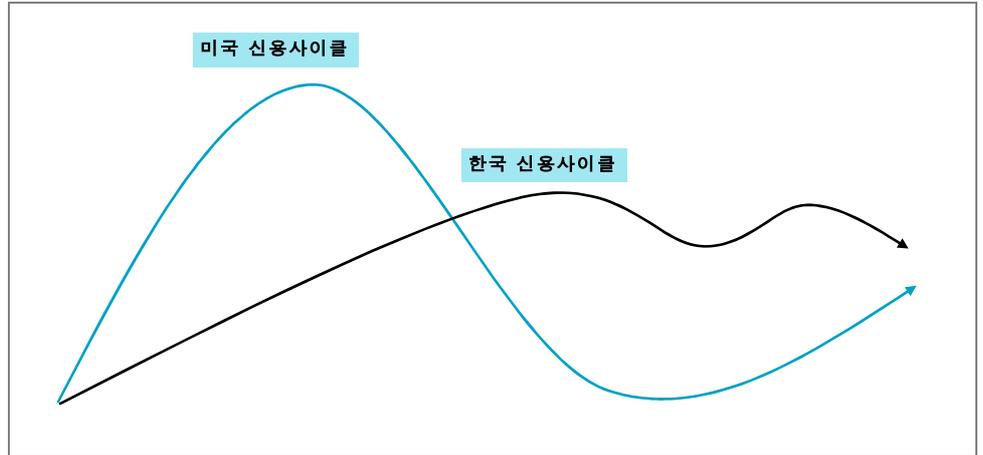
[그림 17] 주체별 총부채 증감 - 미국



자료: 각국 Flow of Funds, 한국투자증권

[그림 18]은 한국과 미국의 신용사이클을 간단히 도식화한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신용사이클은 2008년 충격 이후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사이클은 2012년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림 18] 미국과 한국의 신용사이클 도식화



자료: 한국투자증권

따라서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이 해소되기 위한 출발점은 한국의 이른바 ‘Late deleveraging’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금리 인하 및 재정지출 확대 등의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당분간 KOSPI 지수의 방향은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95년 이후 선진국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 이머징 증시가 횡보세를 나타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중소형주의 강세는 좀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대형주가 막혀 있어 상대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정부의 정책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각각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업종들은(예: 미디어/엔터 등) 아직 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HSBC PMI 지표 호조, 상해종합 사흘째 강세

- ▶ 중국, 3월 HSBC 제조업 PMI 속보치 51.7 (2월 50.4, 컨센서스 50.8)
- ▶ 중국 인민은행, 1월 중앙은행기준 신규 외국환평형기금 3,515억위안, 22개월래 최고치
- ▶ 중국,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전망 -중증망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사흘째 상승.
인프라 및 소재주 지수 강세
주도**

상해종합지수가 소폭 올라 사흘째 강세를 지속했다. 강보합세로 개장 후 장중 등락을 보인 끝에 상승세로 마감했다. 거래금액은 1,047억 위안으로 직전 거래일에 비해 줄었다. 오전에 발표된 PMI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호재였다. HSBC의 중국 3월 제조업 PMI 속보치는 지난 2월과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5개월 연속 50을 웃돌며 경기확장국면을 유지했다. 대외수요 회복에 힘입어 생산, 신규주문, 신규수출주문 항목이 개선됐다. 인프라 관련주와 소재주가 지수 강세를 주도했고 공무용 자동차 수요 증가 전망으로 관련주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SOC(+4.0%), 신재생에너지(+2.5%), 전자(+2.4%), 가전(+1.9%), 통신장비(+1.7%), 헬스케어(+1.5%), 정유/화학(+1.2%), 철강(+1.1%), 전력설비(+1.0%), 기계(+0.9%), 석유/천연가스(+0.8%), 섬유/의류(+0.7%), 자동차/부품(+0.5%), 석탄(+0.4%), 비철금속(+0.2%) 등 대다수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시멘트, 음식료, 부동산, 은행 등은 하락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소폭 반락.
소재주 약세, 금융 및 IT,
소비재주는 상승**

홍콩H지수는 급등 하루 만에 소폭 반락했다. 강보합세로 개장한 후 중국 PMI 지표 호조에 힘입어 장 초반 1% 이상 올랐으나 이후 약세로 돌아섰다. 미국 Fed가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중국 PMI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키프로스 의회의 구제금융 협상안 비준 거부로 따른 부담이 여전히 하락압력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석탄, 철강/비철금속, IT, 화학 등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그러나 보험, 전자, 미디어, 통신, 은행, 석유/천연가스, 섬유/의류, 헬스케어, 음식료, 자동차 등의 업종이 강세를 유지하며 지수 하락세를 제한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3/21(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324.24	0.30	2.38	-1.75	2.43
홍콩 H	10,944.35	-0.31	-1.42	-4.31	-4.30
인도 SENSEX	18,918.21	0.18	-3.33	0.30	-2.62
러시아 RTS	1,488.22	-0.08	-3.09	-3.01	-2.54
브라질 보베스파	56,030.03	-0.59	-2.36	-2.43	-8.08
베트남 VN	491.79	0.98	3.62	3.63	18.87
MSCI 이머징마켓	1,026.35	0.14	-2.04	-2.68	-2.73

주: 21일 오후 5시 1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미국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며 코스피, 코스닥 동반 약세

- 미국증시는 키프로스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하며 상승 마감.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장중 전해진 북한의 공습경보 발령 소식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동시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6거래일 연속 이어지며 하락반전, 1,950P까지 밀려 나며 마감.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장초반 550P선 위로 올라서며 상승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장 막판 하락반전하며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중국인 드룸액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GKL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자본 적정성 개선을 위해 싱가포르투자청으로부터 555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한 메리츠화재는 견조한 오름세를 나타냄. SSD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비아이이엠티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으며, 낙폭과대 인식이 확산되며 금호석유를 비롯한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소식에 케이피엠테크가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태국 정부가 발주한 12조원 규모의 물관리사업 프로젝트의 최종낙찰자 선정이 연기됐다는 소식에 도화엔지니어링을 비롯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GKL(114090) ▶32,700(+3.48%)	중국인 드룸액 급증 소식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 중국 명절 특수 등으로 최근 중국인의 드룸액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일본인과 기타 고객의 드룸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5%, 7% 감소한 반면 중국인은 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메리츠화재(000060) ▶12,700(+5.39%)	싱가포르투자청으로부터의 자금 유치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555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신주발행가액은 11,990원이며, GIC는 메리츠화재의 지분 4.57%를 보유하게됨. 이번 증자를 통해 RBC(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이 약 10%p 상승 할 것으로 예상돼 자본 적정성 제고 및 영업력 확대 기대
비아이이엠티(052900) ▶6,890(+6.82%)	SSD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재료, 장비, 액정표시장치(LCD) 장비 생산 업체로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SSD(Solid State Drive) 수요 증가함에 따라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울트라북, 슬림 노트북 출시가 확대되는 가운데 SSD의 글로벌 판매량은 지난해 4,090만대에서 올해 9,010만대로 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석유화학주	낙폭과대 인식이 확산되며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폭과대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품 가격 조정에 따른 회복 추세 및 투입원가 하락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금호석유(011780, +6.50%), 한화케미칼(009830, +2.76%), 롯데케미칼(011170, +2.22%), 대한유화(006650, +2.12%), LG화학(051910, +2.04%)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하이닉스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	28,050 (-1.9)	28,600 (3/21)	- 갤럭시S4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모바일 DRAM의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신규 스마트폰 및 SSD 보급 확대로 NAND수요도 견조할 것으로 전망됨 - 업황 개선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이 예상되며, 하반기 PC 수요 회복 시에는 PC DRAM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도 상존
우주일렉트로 (065680)	26,800 (-3.1)	27,650 (3/05)	- 일본 경쟁업체 대비한 경쟁력 열위를 극복하여 주요 고객 내에서 점유율 확대 추세 - 금년 1분기에는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1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 IMT(In Mold Technology), FFC(Flexible Flat Cable), 자동차용 커넥터 등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부각 가능성 상존
기아차 (000270)	54,900 (-0.2)	55,000 (2/26)	- 1월 중국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1월 세계 시장 점유율도 사상 최고치인 3.9%(전년동월 3.5%)를 달성. 또한 최저 수준의 재고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3월과 5월에 K3와 K7의 미국 판매를 시작으로 신차 모멘텀 기대 - 신모델 출시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감안할 때 환율 안정 시에는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에스엘 (005850)	14,550 (+8.2)	13,450 (2/06)	- A/S부품 비중 상승(에스엘루막스), GM납품 물량 증가(에스엘연대), 제품믹스 개선(에스엘미크) 등으로 지분법 이익 견고.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 현대의 중국 3공장과 브라질공장 가동효과, 미국 테네시공장의 램프 생산능력 확장, 동사 램프를 탑재하는 신모델 출시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엠펙스 (097520)	13,500 (+68.5)	8,010 (1/31)	- 작년 하반기부터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삼성으로 공급하기 시작, 향후 물량 확대 가능성 상존. 또한 ZTE, 화웨이 등 중국 로컬업체와의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ZTE의 신규 최신행 스마트폰 '그랜드S'에 13M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향 매출 신장 기대 -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의 경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중. 향후 미국 내 자동차 후방카메라 의무장착 법안 추진 시 수혜 예상
에스맥 (097780)	16,200 (-1.8)	16,500 (1/21)	- 각종 IT기기에 적용이 되는 입력모듈(Key Module, Touch Screen Module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태블릿 PC 시장 성장과 삼성전자 내 점유율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전망 - 터치패널용 핵심부품인 ITO 센서 라인을 증설하여 2013년 상반기 내에는 내재화 비율 100%를 달성할 전망. 여타 터치패널 관련주 대비 저평가 매력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하이닉스, 기아차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에스맥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유한양행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유한양행 (000100)	180,500 (-3.0)	186,000 (3/21)	918	64	130	12,330	14.6	- 신제품 효과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API(원료의약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화학(100% 지분 소유)의 증설효과가 예상됨 -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기저귀의 중국 수출 확대와 바이오 회사 지분투자 및 외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 유효 - 장기 성장성, 실적 모멘텀,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LG전자 (066570)	79,700 (+2.7)	77,600 (2/26)	53,357	1,562	1,116	6,197	12.9	- 2012년 휴대폰 부분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및 ASP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가전, TV, 에어컨 부분의 견고한 경쟁력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그룹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SK이노베이션 (096770)	160,000 (-6.2)	170,500 (2/06)	67,991	2,326	1,731	18,578	8.6	- 유가 안정과 정제마진 개선, PX/ BTX 등 주요 화학제품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1분기 실적 개선 예상 - 정유사업의 실적 변동성 축소로 인한 이익 개선과 석유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이익 규모를 유지할 전망
대덕GDS (004130)	18,450 (+0.8)	18,300 (1/21)	578	58	49	2,156	8.6	- 모바일기기에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 확대는 주력제품인 Rigid Flexible (R/F) FPCB 판매 호조를 견인할 전망 - FPCB와 모바일 메인보드용 HDI 매출비중이 2012년 55%에서 2013년 63%까지 확대되며, 가전에 탑재되는 범용 PCB 제품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직하형 LED TV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LED BAR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부의 제품 mix 개선에 따른 이익률 개선 기대
농심 (004370)	284,000 (+4.4)	272,000 (1/3)	2,148	133	128	22,127	12.8	- 삼다수사업 철수, 벤조피렌 이슈 등으로 주가 부진했으나, 자체 브랜드 '백산수' 런칭과 프리미엄 신제품 (블랙신커피 및 신라면블랙) 판매 호조, 수출 증가 등을 주목할 필요 -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 경쟁구도 안정화, 제품라인업 강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NHN (035420)	271,000 (+19.1)	227,500 (1/2)	2,694	779	580	13,205	20.5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NHN, SK이노베이션, LG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3/14(목)	03/15(금)	03/18(월)	03/19(화)	03/20(수)	03/21(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02.13	1,986.50	1,968.18	1,978.56	1,959.41	1,950.82	
	등락폭	2.40	-15.63	-18.32	10.38	-19.15	-8.59	
	등락종목	상승(상한)	494(6)	460(12)	260(20)	472(3)	252(8)	298(2)
		하락(하한)	324(2)	359(4)	566(2)	322(2)	565(1)	494(7)
	ADR	106.02	105.02	100.51	102.76	97.97	91.83	
	이격도	10 일	99.68	99.10	98.40	99.11	98.45	98.29
		20 일	99.89	99.09	98.21	98.74	97.85	97.60
	투자심리	60	50	50	50	40	40	
거래량 (백만 주)	321	303	301	322	327	258		
거래대금 (십억 원)	3,971	5,212	3,906	3,646	3,728	3,489		
코스닥	코스닥지수	553.58	554.81	541.09	550.01	546.26	544.56	
	등락폭	3.85	1.23	-13.72	8.92	-3.75	-1.70	
	등락종목	상승(상한)	581(14)	474(9)	181(6)	711(9)	297(10)	374(5)
		하락(하한)	344(6)	447(5)	762(9)	226(4)	640(9)	546(11)
	ADR	116.12	112.28	104.02	107.67	102.15	97.90	
	이격도	10 일	101.88	101.75	99.17	100.69	99.97	99.60
		20 일	103.77	103.59	100.78	102.14	101.22	100.73
	투자심리	80	80	70	70	60	60	
거래량 (백만 주)	591	561	502	488	477	457		
거래대금 (십억 원)	2,525	2,594	2,286	1,936	2,160	1,95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757.4	915.7	795.6	167.4	100.0	228.0	44.7	28.2	205.3	45.3
	매도	1,503.3	1,230.0	739.6	181.4	128.9	188.1	69.4	13.4	139.1	41.2
	순매수	254.1	-314.2	56.0	-14.0	-28.9	39.9	-24.7	14.8	66.2	4.1
	03 월 누계	1,403.0	-1,824.2	404.8	99.4	54.0	-629.6	-47.4	50.4	411.1	16.4
	13 년 누계	714.4	-2,144.8	1,743.3	1,032.9	436.7	-1,952.4	-226.0	91.6	1,881.6	-313.0
코스닥	매수	1,786.8	81.8	88.7	11.0	10.6	26.5	3.9	5.3	28.5	15.4
	매도	1,787.1	77.3	88.8	15.0	11.9	31.3	9.0	2.3	16.0	19.4
	순매수	-0.3	4.4	-0.1	-4.0	-1.3	-4.8	-5.1	2.9	12.5	-4.0
	03 월 누계	-296.9	297.3	64.7	-11.7	20.2	-23.3	-35.2	6.0	68.4	-65.1
	13 년 누계	-935.4	598.4	555.8	62.3	48.6	124.8	-20.9	-7.4	308.7	-218.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6,550	전기,전자	-4,623	화학	35,379	운수창고	-8,865
유통업	9,872	증권	-3,593	전기,전자	16,511	금융업	-4,192
금융업	9,521	제조업	-3,379	유통업	5,566	증권	-2,376
삼성전자	11,562	삼성SDI	-9,443	삼성전자	16,409	SK하이닉스	-11,579
현대차	10,333	제일모직	-6,415	롯데케미칼	11,834	현대글로벌비스	-6,287
신한지주	9,727	KODEX 200	-6,361	금호석유	11,266	엔씨소프트	-5,986
롯데케미칼	7,589	LG전자	-5,128	삼성전기	9,882	NHN	-2,483
삼성물산	7,503	SK하이닉스	-4,689	LG화학	8,174	아모레퍼시픽	-2,21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4,873	서비스업	-618	전기,전자	6,571	금융업	-12,703
화학	2,436	은행	-122	보험	1,740	서비스업	-7,714
금융업	1,942	철강및금속	-97	유통업	1,290	통신업	-7,094
KODEX 레버리지	8,902	SK하이닉스	-2,104	KINDEX200	29,892	신한지주	-11,022
SK텔레콤	3,222	KODEX 인버스	-1,034	삼성전자	16,398	NHN	-9,559
KODEX 200	3,206	엔씨소프트	-708	KOSEF 200	10,144	대우조선해양	-4,471
TIGER 200	2,633	SBS미디어홀딩스	-547	KODEX 200	8,122	만도	-4,392
삼성전자	2,306	NHN	-547	기아차	4,657	GKL	-3,904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42,199	통신업	-14,396	제조업	5,367	화학	-77,985
운수장비	18,767	운수창고	-10,009	통신업	3,176	전기,전자	-74,778
유통업	15,972	증권	-6,514	유통업	3,085	금융업	-60,369
KODEX 200	69,202	KODEX 레버리지	-167,614	SK하이닉스	12,510	삼성전자	-104,027
삼성전자	49,775	SK하이닉스	-26,103	기아차	11,368	KODEX 200	-82,173
KODEX 인버스	32,642	NHN	-12,516	NHN	11,232	롯데케미칼	-39,982
롯데케미칼	25,453	삼성SDI	-9,660	LG디스플레이	8,820	한국전력	-27,112
현대차	15,787	현대글로벌비스	-9,264	LG전자	7,739	현대차	-26,221
금호석유	15,134	LG디스플레이	-7,068	GKL	7,466	신한지주	-24,921
삼성물산	13,203	제일모직	-6,944	현대백화점	7,186	하나금융지주	-18,280
하나금융지주	9,949	KT&G	-6,544	KT&G	5,394	대우조선해양	-15,961
LG화학	9,300	현대백화점	-6,335	SK텔레콤	4,167	OCI	-12,204
한국전력	9,297	KB금융	-6,266	호텔신라	3,543	KB금융	-9,297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1,681	반도체	-2,222	화학	5,509	반도체	-2,363
디지털컨텐츠	1,633	인터넷	-1,743	계약	3,187	방송서비스	-1,143
출판,매체복제	1,167	사업지원	-1,635	출판,매체복제	1,872	연구,개발	-703
루멘스	1,347	다음	-1,957	에이블씨엔씨	5,283	CJ오쇼핑	-1,009
게임빌	1,187	덕산하이메탈	-1,804	에스엠	1,903	네패스	-878
에스엠	1,167	인터플렉스	-1,647	코오롱생명과학	1,692	컴투스	-855
컴투스	1,006	에스비엠	-1,545	씨티씨바이오	1,243	서울반도체	-788
서부T&D	906	하나투어	-1,426	CJ E&M	935	덕산하이메탈	-786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1,335	계약	-1,176	방송서비스	1,676	출판,매체복제	-3,009
반도체	580	IT부품	-67	연구,개발	749	계약	-1,486
디지털컨텐츠	463	오락,문화	-25	통신장비	489	운송장비,부품	-640
다음	1,335	메디톡스	-803	CJ오쇼핑	1,737	에스엠	-3,010
네패스	381	씨젠	-538	바이오톡스텍	442	메디포스트	-698
에스엠	333	뷰웍스	-94	알에프세미	393	성우하이텍	-544
CJ E&M	304	크루셜텍	-86	포스코엠텍	376	유진테크	-444
세코닉스	272	아가방컴퍼니	-82	파인디지털	330	파라다이스	-400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7,311	반도체	-5,768	출판,매체복제	3,313	화학	-3,402
디지털컨텐츠	3,657	IT부품	-3,577	IT부품	2,472	방송서비스	-1,481
금속	2,611	계약	-2,913	의료,정밀기기	2,133	계약	-1,281
에이블씨엔씨	6,447	인터플렉스	-3,528	에스엠	3,225	에이블씨엔씨	-3,583
에스엠	2,295	덕산하이메탈	-2,737	차바이오앤	3,101	CJ오쇼핑	-2,244
게임빌	1,760	서울반도체	-2,215	오스템임플란트	2,639	네오위즈게임즈	-1,692
인터파크	1,724	GS홈쇼핑	-2,136	게임빌	1,781	안랩	-1,201
포스코엠텍	1,507	에스비엠	-1,891	덕산하이메탈	1,672	성광밴드	-919
네오위즈게임즈	1,276	유진테크	-1,819	컴투스	1,535	이니텍	-768
루멘스	1,141	하나투어	-1,671	하나투어	1,248	메디톡스	-744
파라다이스	1,096	씨젠	-1,539	파라다이스	1,136	성우하이텍	-620
서부T&D	1,004	성우하이텍	-1,400	CJ E&M	1,118	피델릭스	-585
AP시스템	854	태양기전	-1,338	서울반도체	1,115	슈프리마	-54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기	관	외	국
		인	인			인	인
삼성전기	18 일	일성신약	23 일	이트레이드증권	64 일	하이록코리아	7 일
LG하우시스	16 일	LG패션	23 일	메가스터디	13 일	유진기업	5 일
태광산업	10 일	SK텔레콤	16 일	서부T&D	10 일	GS홈쇼핑	5 일
아모레G	9 일	일진디스플레이	14 일	에스엠	10 일	다산네트웍스	5 일
유니드	9 일	하이닉스	13 일	태웅	9 일	에스에프에이	5 일
세아제강	7 일	대덕전자	11 일	주성엔지니어링	8 일	덕산하이메탈	5 일
엔씨소프트	7 일	아세아시멘트	10 일	인터파크	7 일	파라다이스	4 일
KOSEF 인버스	7 일	KT&G	7 일	에이블씨엔씨	6 일	인터파크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기	관	외	국
		인	인			인	인
삼성전자	524,505	SK하이닉스	75,124	에이블씨엔씨	22,922	덕산하이메탈	15,363
KODEX 200	173,220	LG전자	51,070	에스엠	12,511	GS홈쇼핑	15,349
삼성물산	120,415	KT&G	26,494	인터파크	6,653	차바이오앤	9,837
KODEX 인버스	99,933	SK텔레콤	25,436	젬백스	6,104	서울반도체	5,606
기아차	73,486	NHN	22,240	코오롱생명과학	5,449	컴투스	4,731
현대차	67,733	삼성SDI	19,243	조이맥스	4,892	인터파크	3,426
현대모비스	40,438	기아차	14,839	서부T&D	4,496	하이록코리아	3,403
한국전력	33,375	호텔신라	12,502	주성엔지니어링	4,491	한글과컴퓨터	2,620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외	국	인	인	계
유통업		15,972		3,085			19,058
의료정밀		205		905			1,110
비금속광물		110		109			218
기아차		6,745		11,368			18,113
호텔신라		1,616		3,543			5,159
메리츠화재		2,749		2,084			4,833
LG상사		2,530		314			2,844
스카이라이프		1,921		242			2,164
대상		1,162		71			1,233
CJ CGV		833		377			1,211
넥센타이어		328		656			984
한진		783		46			830
현대그린푸드		343		468			810
출판,매체복제				2,497		3,313	5,811
디지털컨텐츠				3,657		1,511	5,168
전문기술				2,568		1,191	3,759
에스엠				2,295		3,225	5,521
게임빌				1,760		1,781	3,541
오스텔임플란트				367		2,639	3,005
파라다이스				1,096		1,136	2,233
컴투스				433		1,535	1,968
CJ E&M				771		1,118	1,889
인터파크				1,724		57	1,781
포스코엠텍				1,507		97	1,604
젬백스				279		997	1,276
위메이드				515		459	97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TIGER S&P500선물(H)	37 일	화신	28 일	GS홈쇼핑	8 일	KCC건설	29 일
TIGER 200	20 일	금호석유	16 일	인터플렉스	8 일	JW중외신약	7 일
제일기획	16 일	GS건설	14 일	서울반도체	6 일	SK브로드밴드	6 일
LG패션	14 일	효성	13 일	포스코켄텍	5 일	심텍	6 일
LG생활건강	13 일	LG화학	11 일	네패스	5 일	SBS콘텐츠허브	6 일
현대글로벌비스	12 일	대한생명	11 일	심텍	4 일	미래나노텍	5 일
TIGER 레버리지	12 일	KODEX 200	11 일	덕산하이메탈	4 일	실리콘웍스	5 일
TIGER 화학	11 일	현대증권	9 일	메디포스트	4 일	에이블씨엔씨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445,053	삼성전자	-1,130,767	덕산하이메탈	-10,854	에이블씨엔씨	-9,363
SK하이닉스	-52,698	KODEX 200	-211,460	CJ E&M	-10,431	게임빌	-6,609
현대글로벌비스	-33,890	한국전력	-109,530	인터플렉스	-10,161	SK브로드밴드	-4,081
LG전자	-32,711	LG화학	-81,461	하이텍팜	-5,955	오스템임플란트	-4,013
KB금융	-30,305	롯데케미칼	-65,847	모두투어	-5,370	성광밴드	-3,264
POSCO	-29,637	삼성물산	-63,741	네패스	-4,609	플렉스컴	-2,595
삼성SDI	-28,866	삼성엔지니어링	-61,589	이엘케이	-2,921	디지텍시스템	-1,743
KT&G	-26,149	신한지주	-51,063	메디포스트	-2,645	원익IPS	-1,682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창고	-10,009	-6,901	-16,910	제약	-2,913	-1,281	-4,194
서비스업	-6,132	-6,910	-13,042	방송서비스	-1,445	-1,481	-2,926
증권	-6,514	-3,272	-9,787	정보기기	-2,025	-104	-2,129
KB금융	-6,266	-9,297	-15,563	씨젠	-1,539	-483	-2,023
삼성엔지니어링	-2,267	-8,463	-10,730	성우하이텍	-1,400	-620	-2,020
SK이노베이션	-800	-8,439	-9,240	에스비엠피	-1,891	-105	-1,996
제일모직	-6,944	-1,198	-8,142	메디톡스	-1,221	-744	-1,964
KT	-6,162	-861	-7,023	안랩	-247	-1,201	-1,448
효성	-5,301	-323	-5,624	바이로메드	-946	-393	-1,339
만도	-5,155	-357	-5,512	심텍	-657	-377	-1,034
삼성중공업	-3,210	-1,650	-4,860	슈프리마	-456	-544	-1,001
외환은행	-310	-3,900	-4,210	하이텍팜	-481	-132	-612
BS금융지주	-874	-3,309	-4,182	SBS콘텐츠허브	-77	-509	-58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1	16,441
S-Oil	64	5,909
삼성엔지니어링	39	5,174
SK이노베이션	26	4,170
GS건설	72	3,694
SK하이닉스	112	3,210
삼성SDI	23	3,162
LG디스플레이	78	2,46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게임빌	15	1,392
파트론	54	1,336
인터플렉스	21	853
CJ E&M	23	786
에이블씨엔씨	9	764
에스엠	16	758
조이맥스	18	737
안랩	9	692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813	5,566,449
POSCO	9,378	3,029,165
LG전자	28,617	2,289,324
OCI	8,260	1,391,755
현대차	5,374	1,168,870
NHN	3,626	975,426
SK하이닉스	30,242	864,926
현대모비스	2,604	789,06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7,110	459,416
서울반도체	4,485	127,809
에스엠	1,910	91,399
파라다이스	3,986	85,896
씨젠	1,039	74,067
덕산하이메탈	2,432	68,332
파트론	2,642	64,473
차바이오앤	5,205	60,640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전기,전자	3,980	운수장비	-1,210
서비스업	3,793	운수창고	-710
화학	2,038	통신업	-505
KB금융	3,366	우리금융	-3,030
SK하이닉스	2,229	한진해운	-2,829
KODEX 200	2,190	한진중공업	-1,830
SBS미디어홀딩스	1,762	STX조선해양	-1,671
한국전력	1,621	넥센타이어	-694
신한지주	1,350	LG유플러스	-617
LG디스플레이	1,272	한국가스공사	-543
삼성중공업	1,110	엔씨소프트	-322
LG	920	월비스	-258
외환은행	903	삼성테크윈	-22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IT부품	814	종합건설	-283
전문기술	617	컴퓨터서비스	-98
도매	344	소프트웨어	-85
파트론	439	루멘스	-530
인터파크	315	크루셜텍	-304
오스템임플란트	305	서희건설	-253
CJ E&M	237	이엘케이	-211
유원컴텍	236	MDS테크	-202
차바이오앤	220	위메이드	-184
유비케어	178	옵니시스템	-182
원익IPS	174	티엘아이	-148
우리이티아이	164	STS반도체	-123
네패스	161	덕산하이메탈	-111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3/15(금)	03/18(월)	03/19(화)	03/20(수)	03/21(목)
외국인	-2,144.8	-1,824.2	-1,797.9	-582.3	-356.9	-182.8	-374.3	-314.2
기관계	1,743.3	404.8	638.1	256.9	150.1	93.6	94.1	56.0
(투신)	-1,952.4	-629.6	28.8	25.0	-29.7	33.2	-45.9	39.9
(연기금)	1,912.6	386.8	197.1	77.2	-4.5	-9.2	76.8	63.3
(은행)	91.6	50.4	10.5	-5.6	0.1	-10.7	11.9	14.8
(보험)	436.7	54.0	105.1	69.5	35.0	19.4	8.3	-28.9
개인	714.4	1,403.0	1,113.2	315.7	204.2	65.3	274.0	254.1
기타	-313.0	16.4	46.6	9.7	2.7	23.9	6.3	4.1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3/14(목)	03/15(금)	03/18(월)	03/19(화)	03/20(수)
KOSPI	1,682.77	2,051.00	1,825.74	2,002.13	1,986.50	1,968.18	1,978.56	1,959.41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8626.2	18535.3	18250.2	18579.0	18071.0
(증감액)	2735.7	1996.5	3611.7	-70.2	-248.0	-152.0	-138.0	-99.70
(회전율)	52.6	51.5	34.2	25.0	24.1	24.6	24.0	21.0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173.0	87.0	121.0	97.0	87.0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211.2	4240.9	4310.6	4353.8	4338.8
미수금	240.2	192.3	187.7	125.9	109.8	109.0	129.5	154.5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3/14(목)	03/15(금)	03/18(월)	03/19(화)	03/20(수)
전체 주식형	91,289	-2,621	-954	20	-154	-154	-102	-165
(ex. ETF)		-2,776	-639	32	-37	-37	-22	-1
국내 주식형	66,360	-1,680	-714	-1	-73	-73	-52	-158
(ex. ETF)		-1,845	-401	11	45	45	28	5
해외 주식형	24,929	-941	-240	21	-82	-82	-50	-7
(ex. ETF)		-931	-238	21	-82	-82	-50	-6
주식 혼합형	9,725	-239	-20	-13	-5	-5	34	6
채권 혼합형	20,280	1,083	414	106	10	10	47	13
채권형	49,416	1,799	639	-58	76	76	196	-4
MMF	82,634	19,258	5,512	317	1,316	1,316	-40	-38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3/15(금)	03/18(월)	03/19(화)	03/20(수)	03/21(목)
한 국	-1,902	-1,594	-2,966	-513	-321	-164	-335	-241
대 만	418	-1,119	-1,392	-152	-273	-228	-459	-153
인 도	9,813	1,575	-128	216	99	27	-	-
인도네시아	1,942	192	-470	-44	3	-26	1	-
태국	105	189	-404	135	-55	-33	-110	-
남아공	701	-246	-342	-99	10	-141	-	-
필리핀	988	175	-111	-35	-14	-33	-14	-15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3/14(목)	03/15(금)	03/18(월)	03/19(화)	03/20(수)	03/21(목)
회사채 (AA-)	3.29	2.96	2.95	2.93	2.93	2.94	2.94
회사채 (BBB-)	8.80	8.57	8.56	8.54	8.55	8.55	8.55
국고채 (3년)	2.82	2.62	2.61	2.59	2.60	2.60	2.59
국고채 (5년)	2.97	2.72	2.71	2.68	2.68	2.68	2.67
국고채 (10년)	3.16	2.95	2.93	2.90	2.89	2.90	2.89
미 국채 (10년)	1.76	2.02	1.98	1.98	1.90	1.98	-
일 국채 (10년)	0.80	0.62	0.62	0.62	0.60	0.60	-
원/달러	1,070.60	1,109.00	1,100.30	1,114.35	1,111.55	1,116.10	1,115.70
원/엔	1,243.73	1,155.49	1,146.14	1,177.00	1,165.00	1,172.00	1,170.00
엔/달러	86.08	95.98	96.00	94.72	95.43	95.30	95.41
달러/유로	1.32	1.30	1.30	1.28	1.29	1.29	1.29
DDR3 1Gb (1333MHz)	0.67	0.95	0.99	0.99	1.02	1.01	-
DDR3 2Gb (1333MHz)	1.07	1.76	1.73	1.73	1.69	1.69	-
NAND Flash 16Gb (MLC)	1.89	2.71	2.96	2.96	3.00	3.00	-
CRB 지수	295.01	296.26	296.44	296.44	293.13	294.94	-
LME 지수	3,454.5	3,381.4	3,354.9	3,354.9	3,270.0	3,294.4	-
BDI	699	880	892	892	912	923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3.11	92.38	92.38	92.16	92.95	-
금 (달러/온스)	1,663.40	1,590.70	1,592.60	1,592.60	1,611.30	1,607.5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시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06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3월 15일	260.84	263.40	1.58	2.56	1.63	186,183	112,414	3,398
3월 18일	258.30	260.30	1.50	2.00	1.79	152,110	112,197	-217
3월 19일	259.79	260.30	1.49	0.51	1.77	149,992	111,173	-1,024
3월 20일	257.04	258.50	1.46	1.46	1.13	160,745	110,033	-1,140
3월 21일	255.82	256.35	1.45	0.53	0.98	187,079	110,599	566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보험	기금
			증권	투신	은행				
3월 15일	-6,888	3,252	3,523	506	2,481	253	93	190	
3월 18일	4,688	-1,996	-2,238	-2,716	945	-293	-333	163	
3월 19일	-990	840	-15	-928	1,102	-36	-100	-62	
3월 20일	-3,940	-505	4,513	4,382	-174	-190	-388	882	
3월 21일	-6,803	1,356	5,081	3,476	1,604	95	-242	148	
누적포지션	-13,933	2,947	10,864	4,720	5,958	-171	-970	1,321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3월 15일	1,828	1,273	-555	1,725	1,214	-511	103	59	-45	5,085	9,967
3월 18일	706	859	153	687	820	133	19	39	20	5,029	9,880
3월 19일	739	781	42	726	747	21	13	34	21	5,004	9,758
3월 20일	1,087	680	-407	958	639	-320	129	42	-87	4,984	9,532
3월 21일	862	526	-337	731	519	-212	131	7	-124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변동성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14.75	4,425	136,297	0.27	270.00	15.00	254	-14	21.26
14.78	6,199	146,113	0.48	267.50	12.80	138	5	20.59
14.73	3,130	141,054	0.80	265.00	10.55	485	30	19.18
14.80	5,276	124,659	1.30	262.50	8.55	2,653	-405	18.56
14.91	5,721	66,773	2.02	260.00	6.80	6,847	-73	18.37
14.99	1,226	13,566	2.98	257.50	5.30	13,113	647	18.40
15.06	809	5,818	4.20	255.00	3.95	45,740	-1,357	18.16
14.97	382	1,488	5.65	252.50	2.95	148,258	-222	18.46
15.33	80	277	7.45	250.00	2.18	147,023	292	18.88
15.41	15	69	9.40	247.50	1.57	118,395	22	19.24
14.82	3	31	11.45	245.00	1.15	99,790	1,950	19.87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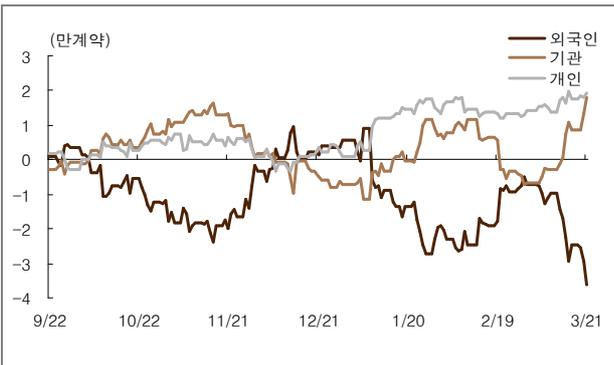
- 평균 Basis: 0.98 (전 거래일 대비 0.15 하락)
- 이론 Basis: 1.45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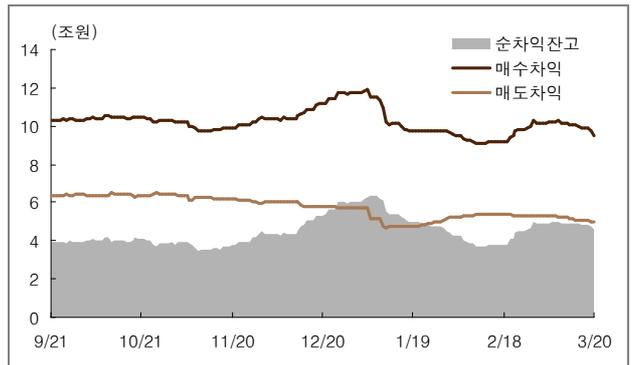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566 계약 증가한 110,599 계약
- 선물가격(256.35): 전 거래일 대비 2.1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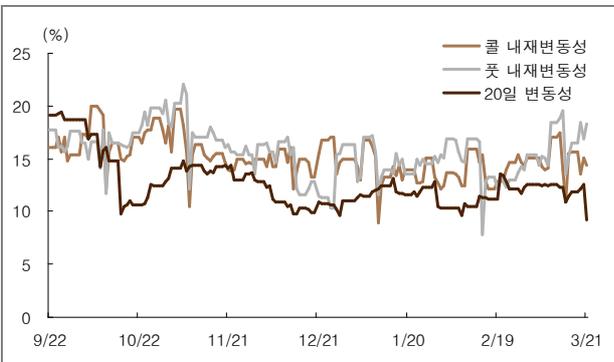
- 외국인: 6,803 계약 순매도
- 기관: 5,081 계약 순매수 / 개인: 1,356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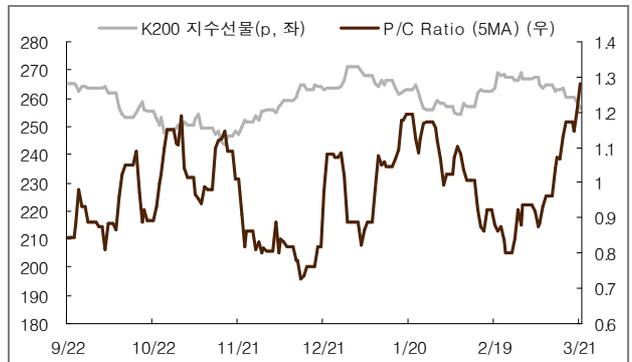
- 차익거래: 1,244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2,123 억원 순매도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4.4% / 풋 18.3%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9.19%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28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3년 3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1	12	13	14	15
中> (3/9) 2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3.2%, 3.0%, 2.0%) (3/9) 2월 생산자 물가지수 YoY (-1.6%, -1.5%, -1.6%) (3/9) 2월 산업생산 YoY (9.9%, 10.6%, 10.0%) (3/9) 2월 소매판매 YoY (12.3%, 15.0%, 14.3%) 2월 신규 위안 대출 (6200억, 7000억, 1조700억) 2월 통화공급 M2 YoY (15.2%, 14.9%, 15.9%) 日> 2월 통화량 M2 YoY (2.9%, 2.7%, 2.7%)	美> 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90.8, 90.0, 88.9) 日> 2월 소비자대지수 (44.3, 43.0, 43.3)	韓> 2월 수출물가지수 YoY (-5.6%, n/a, -8.1%) 2월 수입물가지수 YoY (-8.6%, n/a, -10.6%) 2월 실업률 (3.5%, 3.2%, 3.2%) 1월 통화공급 M2 YoY (0.5%, n/a, 0.1%) 美> 2월 수입물가지수 YoY (-0.3%, -0.7%, -1.3%) 1월 기업재고 MoM (1.0%, 0.5%, 0.3%) 유럽> 1분기 유로권 산업생산 MoM (-0.4%, -0.1%, 0.7%)	韓> 금통위 금리 결정 선물 옵션 등시 만기일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3.2만, 35.0만, 34.2만) 2월 생산자 물가지수 YoY (1.7%, 1.8%, 1.4%) 2012년 4Q 경상수지 (-\$1,104억, -\$1,125억, -\$1,124억) 유럽> (3/14-15) EU 정상 회담	美> 3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n/a, 10.00, 10.04) 2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n/a, 1.9%, 1.6%) 2월 산업생산 MoM (n/a, 0.4%, -0.1%) 3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n/a, 78.0, 77.6) 유럽> 2월 유로권 소비자 물가지수 (n/a, 1.8%, 1.8%)
18	19	20	21	22
韓> 2월 생산자 물가지수 YoY (-1.6%, n/a, -1.6%) 美> 3월 NAHB 주택시장지수 (44, 48, 46) 유럽> 1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90억, €109억, €103억)	美> 2월 주택착공건수 MoM (91.7만, 91.5만, 91.0만) 2월 건축 허가 MoM (4.6%, 2.3%, -0.6%) 中> 2월 실질 FDI YoY (6.3%, -4.8%, -7.3%) 日> BOJ 총재 임기 만료 2월 백화점 매출 YoY (0.3%, n/a, 0.2%)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7.1%, n/a, -4.7%) FOMC 금리 결정 (0.25%, 0.25%, 0.25%) 유럽> 3월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23.5, -23.2, -23.6)	韓> 2월 백화점 매출 YoY (1.7%, n/a, -8.2%) 2월 할인점 매출 YoY (8.9%, n/a, -24.6%)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4.4만, 33.2만) 1월 주택가격지수 MoM (n/a, 0.7%, 0.6%) 3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n/a, -3.0, -12.5) 2월 기존주택매매 MoM (n/a, 1.6%, 0.4%) 2월 경기선행지수 (n/a, 0.4%, 0.2%) 유럽> 3월 유로권 PMI 제조업 (n/a, 48.2, 47.9) 3월 유로권 PMI 비제조업 (n/a, 48.2, 47.9) 中> 3월 HSBC 플래시 PMI 제조업 (51.7, 50.8, 50.4)	
25	26	27	28	29
	韓> 4분기 GDP YoY 4분기 GDP QoQ 美> 2월 내구재 주문 MoM 1월 S&P/CS 주택가격지수 3월 소비자대지수 2월 신규주택매매 MoM	韓> 3월 소비자대지수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2월 미결 주택매매 MoM 임시예산안 종료	韓> 2월 경상수지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中> 2월 선행지수 (미확정)	韓> 4월 BSI 제조업 4월 BSI 비제조업 2월 산업생산 MoM 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美> 2월 개인소득 MoM 2월 개인소비지수 MoM 日> 2월 실업률 2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2월 산업생산 MoM (잠정치) 2월 자동차 생산 YoY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